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2022. 1. 24. (월)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누리동 2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툭아보기' 기대... '독점 자료' 활용한 차별적 보도 부족 아쉬워 (1/22)

언론노조 KBS본부는 제20대 대선 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신문방송학 석박사,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졌으며, 주로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KBS의 대선 보도들을 모니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 보고서를 집필합니다.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애정있는 고언이 KBS 보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공영방송 저널리즘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BS 20대 대통령 선거 모니터링

2022년 1월 22일(토) <KBS 뉴스9>

대선 톡아보기 '공약 닮아가는 두 후보, '소확행' '심쿵' 효과는?'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서로 닮아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 모니터링 지적 때문인지는 몰라도 "메가공약"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대형의제"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적절한 선택이다.

보도는 두 후보의 공약이 공통적으로 '이념형'보다는 '생활밀착형'으로 수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재명측은 이를 "소확행 공약"이라 명명하고 윤석열측은 "심쿵 약속"이라고 부른다고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정책들도 예로 들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런 정책에 대한 유권자 반응을 최근 KBS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준 대목이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생활밀착형' 공약에 대해 41.7%가 "민생공약"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47.3%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평가가 지지후보 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 후보 지지층은 65%가 "민생공약"이라고 답했고, 윤 후보 지지층은 60% 정도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본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의 배경이나 원인이 무엇인가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대형의제의 실종이어서인지"라고 기자가 언급하지만, 사실 원인 분석이라기보다 현상에 대한 동어 반복적 표현이다). 관련 보도는 여기까지였고 후보 토론회 이슈로

넘어갔다. 보도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 두 후보 지지자들의 반응 차이는 몇 가지 이유로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공약 자체의 숫자, 양이다.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은 50개로 17개인 윤석열 후보의 “심쿵 약속”에 비해 거의 3배 많다. 이야기할 내용이 훨씬 많은 이재명 후보가 주도권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후보 지지자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 지지자의 경우 반대로 공약 경쟁이나 정책 토론에서 지지후보가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된 언급 자체를 기피하려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진보에 가까울수록 ‘자상한 어머니’ 모델을, 보수에 가까울수록 ‘엄격한 아버지’ 모델을 지지한다는 사회심리학적 연구도 있는데 이런 기본적 마인드의 차이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조너선 하트, 『바른 마음』). 소위 보수언론들의 정치 보도가 많은 경우 ‘포퓰리즘 때리기’에 경도되어 있는 점 역시 일정 정도 작용했을 수 있다. 여론조사원 데이터를 KBS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보도하지 못하는 관련해서 참신하고 유익한 취재가 가능함에도 짧게 처리한 것 같아 아쉬웠다.

지금까지 ‘대선 톺아보기’ 시리즈는 상당히 흥미롭고 유의미한 보도를 담아왔다. ‘톺아보기’라는 말처럼, 논의되는 이슈를 많이 다루는 것보다 상세히 다루는 것이 더 취지에 맞을 것이다. 대선 후보의 동정이나 정치 공방에서 한발 물러나, 갈등 이면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들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시청자들에게 정치 이슈를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볼 여지를 제공하는 코너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테면 두 후보의 공약이 서로 닮아가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기본소득이나 여성 정책처럼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의제들도 있을 것이다. 두 후보가 서로 닮아가는 부분은 어떤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며 차이를 보이는 공약들에는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후속 취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한다.

오늘 대선 관련 보도는 두 개에 그쳤다. 앞선 모니터링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정청래 의원의 “붕이 김선달” 발언과 불교계의 반발에 대해 KBS가 소극적인 보도를 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붕이 김선달” 발언이 너무 자극적이고 이미 민주당과 해당 의원이 사과를 한 사안에 대해 논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안 자체는 시민들이 충분히 숙의해볼 만한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사찰이 받는 돈은 사실 오래전 권위주의 정권 시기 사찰 내 문화재를 국가가 관리하는 대신 불교계에 떠넘기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법적 근거가 없던 시기 특정 종교가 토지를 무단 점유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지적하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주체 중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다. 그러나 최근 “붕이 김선달” 논란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현재의 기형적 요금징수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언론들이 이 사안이 대선 구도에 끼칠 영향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시민 모두의 관심사에 대해 정확히 살피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다.